대한민국 경제신문 No.1
오늘경제

'포항이 키운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유치

김수란 기자 | 승인 2020.08.26 14:10

[오늘경제 = 김수란 기자] 경북 포항시가 바이오.IT.첨단신소재 기업과 4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26일 시청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개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은 2024년까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36,848㎡ 부지에 45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투자업종은 바이오.IT.첨단신소재 분야이다.

경북 포항시는 26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공장건립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 8개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포항시 제공)

시 관계자는 “총 8개 가운데 7개가 포항에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라며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건립단계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포항에 재투자할 계획이 고용창출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밝혔다.

포항시의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지역에 재투자하는 기업투자 선순환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포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 기업 투자유치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앞으로 기업 투자유치 전략을 타지역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들을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전략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투자유치 협약식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R&D인프라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수란 기자